

3월 KTX 개통 ... 광주~서울 90분대

지역 백화점들 매출 줄까 초비상

수도권 역외 유출 불보듯

명품 유치·쇼핑 몰 구축 마케팅 강화 대책 부심

오는 3월부터 서울~광주 간 KTX 운행시간이 90분대로 단축되면서 광주·전남지역 백화점들 비롯한 유통업체들이 매출 감소를 우려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KTX 운행시간 단축을 계기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하고 지역의 부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5일 광주신세계 등 지역 유통업체는 서울~광주 간 KTX 1단계 개통을 앞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일반적이지만 자칫 수도권으로의 역외 유출이 심화해 침체가 가속화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버스타미널과 접해 유통인구가 몰리는 광주신세계백화점의 경우 KTX 정차역인 광주 송정역으로의 상권 이동과 유통인구의 감소가 예상돼 대응책을 가동하는 등 전사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상태다.

KTX 개통에 따른 우려는 지역 유통업체 자체 분석에서도 감지된다. 실제 광주 한 백화점의 경우 자사 카드고객의 역외매출을 분석한 결과 타지역에서 발생한 매출이 2012년 854억에서 지난해 1020억으로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카드 사용 횟수도 2008년 2만2000건에서 2013년 4만1170건으로 5년 사이에 갑절 이상 급증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현금과 타사카드 결제까지 포함하면 실제 광주 이의 지역에서 이뤄지는 유통소매 규모는 건수, 금액, 인원 모두 3배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KTX 완전 개통이 이뤄진 후에는 ‘빨대 효과’가 더욱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유통업체는 KTX 개통이 무엇보다도 명품을 비롯한 일부 고가품목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백화점을 주로 이용하는 명품족이 다양한 제품을 갖추고 서비스 질도 뛰어난 수도권이나 타지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백화점을 비롯한 지역 유통업체가 이변을 계기로 명품 구매 고객 등의 유출을 막고 외지 고객의 유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KTX 개통 후 광주의 도

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백화점, 아울렛의 규모 확장과 쇼핑 몰(Mall) 구축을 유도하고 전국 상권을 대상으로 한 하이엔드 아울렛 유치 등 공격적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유통업체 관계자는 “광주가 KTX 개통으로 당장의 피해는 없었지만 현재대로 간다면 꼭 수도권이 아니라도 다른 지역에 흡수당할 것이 뻔하다”며 “유통 트렌드의 변화나 지역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지역민의 높아진 요구에 부응하고 다른 지역에도 어필 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쇼핑시설을 유치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KTX 개통 후 광주의 도



호주시 '기아 엑스카' 선배

기아자동차가 15일 호주 멜버른 파크에서 기아차 및 호주오토 관계자, 기아차 글로벌 홍보대사 라파엘 나달 선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아 엑스카(Kia X-Car)' 차량을 선보였다. '기아 엑스카'는 올 뉴 스포츠에 영화 '엑스맨'의 테마를 적용한 것으로, 엑스맨 캐릭터 '올버린'의 상징과 X로고를 차량 곳곳에 형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차 제공>

금호산업, 금호석화 상대 아시아나 주식매각 소송 패소

“합의 인정 안해 어렵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석유화학과의 소송전에서 패하자 ‘법원 판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적인 금호산업(박삼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채권단과 합의한 대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라”고 낸 소송에서 15일 패소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주식 12.6%를 보유하고 있다.

재판부는 박찬구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양도에 합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이사직무를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신청과 금호산업·금호타

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는 법원은 금호아시아나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아시아나는 이들 형제가 2010년 2월 박삼구 회장이 소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각각 완전히 매각해 계열 분리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판부가 동생의 손을 들어주자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합의가 존재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14.14 (+0.48)
- ▲ 금리 (국고채 3년) 2.04% (+0.07)
- ▲ 코스닥 581.39 (+7.22)
- ▲ 환율 (USD) 1083.30원 (+1.10)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새해 새 설계

이 현 수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본부장

“노후 산단 혁신으로 창조경제 구현”

여수·군산·대불·익산 4곳 구조고도화 내실있게 추진 기업지원 플랫폼 활성화도

“광주와 전남지역의 노후산업단지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거점화를 추진하고, 기업성장 종합지원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등 올해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현수(53)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지역본부장은 15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산업단지 출범 50주년을 계기로 산업단지 제도약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과 관련, 올해는 노후 단지를 창조산업단지로 바꾸어 나가는 실행원년으로 삼겠다”며 “지난해 말 혁신산단으로 지정된 여수단지를 포함, 군산과 대불, 익산 등 4개 단지에서 진행되는 노후단지 구조고도화(혁신)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등 호남지역 산업 단지가 창조경제 구현의 중심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를 위해 올해 산학연 네트워크 고도화 및 자생적 기반 확충과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입주기업 경영지원 강화, 호남권 생태산업단지 성과 확산 등 산업단지와 입주



(Linker, 연결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호남지역 생산의 70%, 고용의 50% 이상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고, 국가전략산업이나 신성장동력산업 등 주요 산업의 집적지로서 지역경제의 핵심성장 동력”이라며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사업역량을 집중해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최고의 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구성원 모두의 ‘주인의식’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산업단지의 주인공인 기업과 지자체, 정부, 관리지원기관 등이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호남권의 각 산업단지마다 주요한 현안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모든 구성원의 관심이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수 많은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뜻과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며 “산단공은 입주기업에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단지 환경 구축과 지원서비스 제공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 풍암동에 전국최초 웨딩 전문쇼핑타운 생긴다

‘류브 웨딩타운’ 내년 개장

광주에 전국최초로 모든 결혼상품을 한데 모은 웨딩 전문 대규모 쇼핑타운이 생긴다.

‘류브 웨딩타운’은 14일 “2016년 초 개장을 목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조만간 대형 웨딩 쇼핑타운을 착공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풍암동 821-3번지에 3만3000㎡ 규모로 들어설 이 쇼핑타운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 3개동으로 건설되며 결혼상품관련 27개 업종을 위해 205개 점포를 분양할 예정이다.

3개 건물은 다리를 통해 연결했으며 주차장도 법정대수의 2.4배인 337대의 면을 확보해 한층 여유있는 쇼핑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중앙공원과 수변공원, 야외조각공원 등을 갖춘 연인들에게 이벤트는 물론, 결혼과 관련한 명소가 될 것



으로 업체 측은 전망했다.

신종식 쇼핑추진본부장은 “서울 청담동과 광주 대표 웨딩 업체들을 유치해 최신 트렌드를 제시하고, 웨딩에 관한 모든 것이 준비된 전국 최초의 쇼핑몰로 탄생시킬 것”이라며 “변잡한 도심에서 관

련 상품을 찾아 시간낭비를 했던 예비 신랑신부에게 결혼의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은 2월 중 시작된다. 문의(062-674-2222).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여기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암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기본3인분 3+3 = 30,000원	국내산갈비2+2(480g) 20,000
	기본4인분 4+4 = 40,000원	왕갈비탕(6,000원) 볼백 (6,000원)
	*인원당 1인분 기준	

625세대만리는만리도 아닙니다.

초대박매출

신규창업, 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른점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민물수 있는 우리 지역경제의 봉사 프랜차이즈입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바리다매!! 손님은 싸게 드시고 입주는 작은마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칩찬소장수는 불경기 맞출만큼 손님을 꼭꼭 잡아드립니다.